

글을 정리해봅시다! 글을 잘 읽기 위해 필요한 읽기 요소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글이었네요!

역시나 지금 말한 핵심인 한 줄 ‘글을 잘 읽기 위해 필요한 읽기 요소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글’로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어디 봅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읽기 요소의 목적 생각!!

①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글을 읽기 위한 수단이

②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출수록 더 잘 읽게 된다.

읽기 요소였죠.

③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수단 간의 목적이 어딴냐요

④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⑤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Same as 2206 독서론

UR dokzon in Orbi

‘글을 잘 읽기 위해 필요한 읽기 요소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글’에서 ‘글을 잘 읽기 위해 필요한 읽기 요소’가 출제되었네요...!

한 번 2206 독서론도 볼까요?

①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은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계속 목적이 나와요.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2번 문제 정답을 봐볼게요..!’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한 번이라도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어떻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벗끼리 서로 돕는 것으로는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퇴계(退溪)는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만다. 그러니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 뜻이 참으로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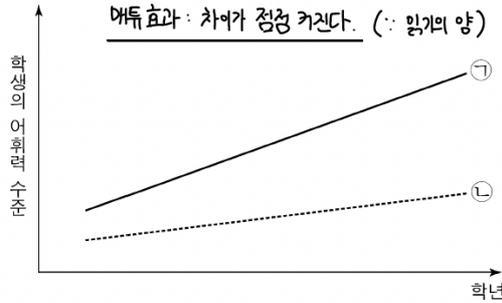
- 이익, 「서독승편론」 -

①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 대한 우리는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

기록의 목적이 망각이라... ㅎㅎ 이게 오답률 높았어요 이제 이리저리 말아요 우리!! ㅎㅎ

2번 봅시다.

2.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 ②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은 학년이 올라가면 ㉠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지능의 차이 때문이다.
- ⑤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매튜 효과-
양성 피드백이었죠.

그러니까 ㉠-㉡이 점점 커진,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되죠.

어휘력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어휘력 격차의 원인은 읽기 양이라고 했으니,

정답이 빨리 보이네요..!

이건 쉽게 푸셨으리라 믿어요

UR dokzon in Orbi

3. <보기>의 관점에서 ㉠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 ①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 ②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 ④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

매튜 효과의 예외!!!
읽기 요소 말고도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

그게 <보기>로 나왔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러므로 읽기 발달이
읽기 요소 말고도
<보기>에 나온 타인의
상호작용으로도 이뤄진다

그게 답이겠죠.

오늘도 출제자의 의도 야금야금 다 파악해봅시다.

2. (가), (나) 복합 지문 - 한나라와 조선의 치국을 위한 학문, 정책적 대응

(가)
 1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a) 기도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b)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c)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목적!**
 2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진 - 사상 통제
 지식-허언, 학문-논란
 순자의 통합 학문 - 흡수 (하나의 기본이 다른 걸 흡수)
 1. 진 멸망 원인 분석
 2. 안정적 통치 방안 제시
 by 육가

1문단 - 진과 달리 다른 사상을 흡수한 통합 학문 for 나라 - '한' 초기 사상가 육가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목적!**
 2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목적**
 3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이었다.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합: 성격 상향성**

목적: 한의 치국
 이에 <신어> 탄생
 P. '진'의 문제들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
 (대비)
 지식- 현실 정치에 도움
 통물- 역사를 관통(정)
 통변- 역사의 흐름(반)
 인의- 세계에 드러남(합)
 유교이념(정)
 현실 정치(반)
 인의 실현(합)
 목적- 인의의 실현
 -> 타 사상 흡수
 S. 진과 다른 해결책
 (합): 수렴적 상향성

2, 3문단: '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한'의 초기 치국

③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元)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 ^{왕의 주관}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실제 다른 왕실의 주관} Some as 1372 (왕실의 주관)

④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 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이었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 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다.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들어간 왕실의 주관}

역사서 편찬 시작
 왕실의 주관!!
 (형식은 다름)
 천명 ∞ 올바른 정치
 목적!!! 고려 멸망 어찌구
 의도가 반영됨
 -> 왕실의 주관이 개입
 우수성
 유교적 시각(주관)
 정통성
 <용비어천가>
 - 정통성 확보

UR dokzon in Orbi

(나) 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들어간 왕실의 주관

(가)와 (나)의 연결성을 확인해보자.

- 이전 왕조의 단점을 부각하고, 새로운 왕조의 가능성과 우수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가)와 (나)의 연결성을 볼 때, 또 하나의 팁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을 확인해보자.

‘천명’ - (가), (나)의 공통점: 천명이 올바른 정치에 따라 달라짐.
 (생각해보면, 애는 건국의 정당성이므로 두 글을 모두 관통하는 핵심)

‘학문’ - (가), (나)의 공통점: 세상에 구현되어야 함.

애네를 위주로 문제로 들어가보자.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보며...!)

4.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rightarrow 공통점 = (가), (나)의 연결성 = 전 3개 비판, 현 3개 항목 with 책 이걸 쉽죠?
- (가)는 한(漢)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출제자의 의도: 두 글의 연결성 잡기

5.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rightarrow 진의 폐단
- ②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rightarrow 『순자』: 통합학을 현행성이 다른 덕에 '왕실의 주관!'
- ③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④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었다. \rightarrow 고려 멸망의 필연성
- ⑤ 『용비어천가』에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rightarrow 조선 건국의 정당성

출제자의 의도: (가)와는 다른 (나)만의 특징_ 왕실의 주관이 들어간 역사서...!

형식이 다른 덕에 왕실의 주관을 부입했으니 이게 당연히 문제로 나올 수 밖에...

- ㉠: 통틀 (경) - 역사를 관통
 ㉡: 통변 (반) - 역사에 따라 변화
 ㉢: 인의 (합) - 『순자』 아까 생각한 연결성.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역사를 관통(전체적) 천명!!
- ② ㉡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유교!! (통합하는 다른 학을 '흡수')
- ③ ㉢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한다. 출제자의 의도_ 두 글의 연결성
- ㉣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이다. 『순자』의 정치행위에 따라 '왕실의 주관'
- ⑤ ㉠과 ㉡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인의(경) (반) (합)

육가: 진과 달리 다른 사상을 중시하여 유교이념(유) + 현실정치(통변) → 인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정) (변) (합)

쟁현: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들어간 왕실의 주관

7. 밑글에서 '육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 하도록 한다. ○

㉡.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 온 것에 있다. X 천명 ~ 정치행위에 따라

㉢.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X

- ① ㉠ ② ㉡ ③ ㉠, ㉡
- ④ ㉠, ㉢ ⑤ ㉡, ㉢
- 사상에만 공백
 사상적 공백 = 사상에 대한 공백 → (사상) ↔ (사상) 3
 다른 사상이 잘못됐다는 게 이 글의 main 논거.

공통점이라고 했으니, 이미 연결성을 잡은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문제네요 역시...

UR dokzon in Orbi

8.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 객관적 서술 ≠ (나)

나.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람(士林)의 채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 천명 ~ 정치행위 X, 시세의 흐름

다. 도(道)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 Same as (나)

- 가. 왕실의 주관과 대책점
- 나. 천명with흐름
- 다. 역사서의 적용

선지도 확인해봅시다.

① ㄱ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군.

② ㄱ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 왕실의 주관에 개입}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 혼} ~~객관적~~ 깨끗이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X

③ ㄴ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들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있다고 보아야겠군.

④ ㄷ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ㄷ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 편찬과 관련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에, 현실에서 학문의 구현은 도의 큰 쓰임에 대응하겠군.

(가)의 특징인 ‘왕실의 주관’을 정확히 건드리는 ㄱ이 역시나 출제.

모든 정답 선지는 ‘글의 주제’에서 옵니다.

한 문장으로도 풀릴 수 있게 한 문장으로 글을 요약하는 연습을 합시다.

(가) : 진과 달리 다른 사상을 존중하며 ‘유교 이념(정)+현실 정치(반)-> 인의의 실현’

(나) :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들어간 왕실의 주관

애네로 다 풀리니까요.

해설이 간단한 이유는 조금 문제가 간단히 출제되었기 때문이에요.

주제만 하면 바로 풀리니 이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웠던 게 주관에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 수 있어도,

‘왕실의 주관’을 확실히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웠네요..

평소에 떡밥 찾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했을 듯 합니다. 그냥 가벼이 읽지 않고요.

도입부는 항상 꼭꼭 읽는 습관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 조사, 보조사 하나조차도 놓치지 맙시다. 아시겠죠?

이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3. 과학 지문 - 비타민 K의 인체에서의 기능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섬유소 2을 (2. 피브린) (2. 혈소판) = '응고'

1. 혈액은 ①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명거울에서 단백질인지 아닌지는 꼭 Check!!

혈관 벽

혈액 ↓ ~ 침착됨.

응고는 현상. But 혈관 '속' 혈전 침착은 안돼!!

과학 지문에서는 '인과 관계'가 항상 최우선입니다. 확인해봅시다.

혈관 벽 손상 시 발생하는 출혈 - 혈액이 응고되어야 혈액 손실 막을 수 있음.

혈액응고 by 섬유소 그물(피브린)-혈소판 마개(혈소판이 모임)

혈관 '벽'에서 주로 일어나는 혈병 중 혈관 '속'의 혈병 = 혈전

혈액 응고는 혈관 벽을 때끼 혈액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인데, 혈전은 혈관 속이니 쓸모가 있을까?

여하튼, 동맥 경화 ->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남.

이때 비타민 K의 역할이 나옴.

- 1. 혈액의 응고
- 2. 원활한 순환

동맥 경화가 일어나거나 혈전이 다른 이유로 침착되면 원활한 순환이 안 되겠지..?

여기까지 알아냈어야 베스트이다.

다른 건 몰라도 비타민 K의 역할이 2개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야 한다.

그래야, 뒤 내용의 전개 흐름이 이해가 될 것.

②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 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빼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Vitamin K 역할 ① 혈액의 응고 ~ 카르복실화 1. 혈액응고의 활성화를 도움.

역할1- 혈액의 응고

연쇄반응 뭐지?

과정 check

불용성-녹지 않는-응고

카르복실화(조건of활성화)

혈액 응고의 과정: 비타민K가 단백질을 카르복실화->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프로트롬빈->트롬빈->피브리노겐이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전환->혈액이 응고됨

따라서 비타민K는 혈액 응고 인자를 카르복실화하여 활성화함으로써 혈액 응고라는 첫 번째 역할을 수행함.

③ 비타민 K는(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바람직한 상황

비타민 K1과 K2 구별

K1을 충분히 먹으면

혈액 응고 ok.

혹시 K2는 필요없나..?

아직 비타민 K의 첫 번째 역할인 '혈액 응고'에 대해 얘기함.

앞으로 비타민 K의 두 번째 역할인 '원활한 순환'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긴장하고 있어야 함. + 비타민 K2는 어떤 역할을 할지, 혹시나 원활한 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과학지문이므로 인과관계에 항상 주의하자]

[생명 지문에서 단백질이나 아니냐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비례, 예외 관계는 파악하자]

[단계 중 어떤 단계에 영향을 끼치는지 꼭 정리하자]

④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 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K가 있어야 혈관 석회화를 방지하여, 원활한 순환이 가능하다.

또 다른 기능?
혹시 원활한 순환?
칼슘 농도와 달리 골밀도는 안 높아짐
혈관 석회화
P. of '원활한 순환'

비타민 K -> MGP 활성화 -> 혈관 석회화 억제 -> 원활한 순환 ∴ 비타민 K -> 원활한 순환

이게 평가원의 글이죠. 도입부대로 철저히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글이 전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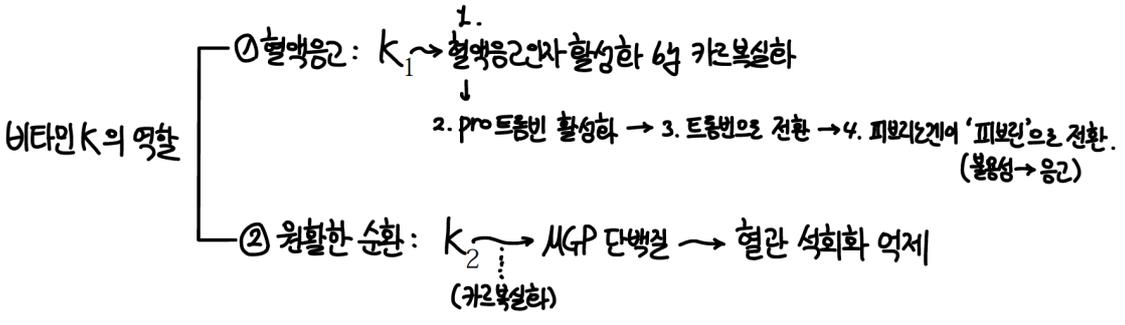
⑤ 비타민 K₁과 K₂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K₁은 간세포에서, K₂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₁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₂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₁과 K₂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₂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나서 비타민 K-의존성

K1_ 혈액 응고
K2_ 그 외 단백질 (ex. MGP)
안 그러면 골다공증 걸릴테니까...!

기가 막히네요.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볼까요?

*정리



이 정리를 벗어나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되, 핵심은 모두 담는 것. 이게 독서 공부의 비결입니다.

문제 한 번 확인해봅시다.

10.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과 관계를 물어봄.

- (결과) ← (원인)
- ①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과학 지문에서 흔함.
 -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인과관계의 전반...!**
 -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 ⑤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 원활한 순환 ⊕

11. 칼슘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타민 K₂의 존재
이유 - MGP

-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₁의 효용성이 감소 된다는 것이겠군. → 칼슘의 역할
- 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 하다는 것이겠군. ∴ 칼슘 먹어도 뼈에 전달이 안 됨
-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비타민 K₂를 물어본 문제..!**
-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여기까지 쉽죠? 단순히 우리가 정리한 저 몇 줄만 있으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출제자 의도 잘 체크하시면서 오고 계셔야 합니다...!

1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차이점은 역할이 다름.

- 공통점: 카르복실기 다른 단백질의 활성화를 도움.
차이점: 지방, 단백질
- ① ㉠은 ㉡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도입부를 잘 봅시다 ㅎ
 - ② ㉡은 ㉠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 ③ ㉡은 ㉠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공통점을 꼬집었네요.
 - ④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위의 *정리의 과정 번호를 이용했으니 참고 바람.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가)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1.을 방해함, 3.은 방해X ~ 새존응고X, 응고된건 여전히.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4.를 방해 ~ 이미응고된게 용해됨.

(다) 헤파린: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1.은 관상, 3.을 방해함 ~ 피브린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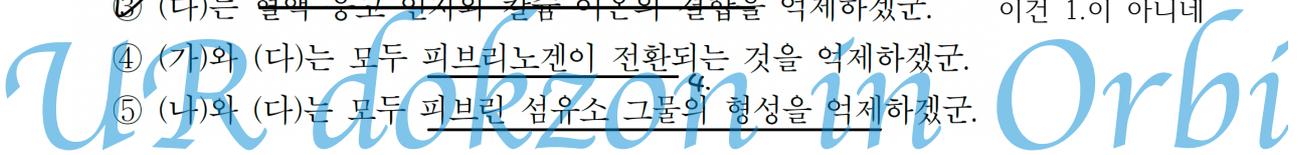
인과 관계를 세세히 알아야 함

어차피 비타민K는 단백질의 활성화를 위한 카르복실화를 도움.

새로운 응고 or 원래 응고인지를 꼬집어준 문제.

- MGP 비활성화.
- ①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 ② (나)는 이미 멎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 ③ (다)는 혈액 응고 인자의 가수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이건 1.이 해당.
 -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이건 1.이 아니네



됐나요?

결국 도입부의 비타민K의 역할 두 가지 [혈액 응고 + 원활한 순환] 가 전부였던 지문입니다. 아까, 첫 독서 지문도 '왕실의 주관'이라는 도입부 핵심으로 독해가 술술 풀렸었죠. 이런 것처럼 글의 핵심이 되는 그 하나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

...가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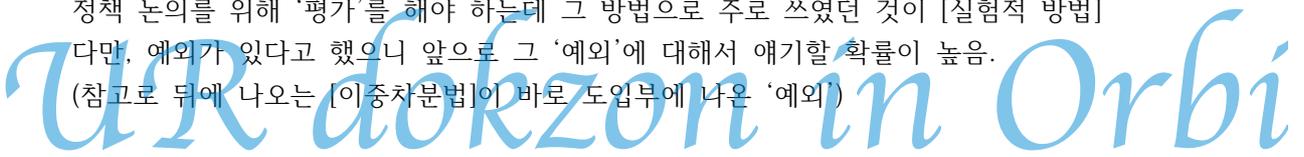
이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기출을 기반으로 연습하는 게 앞으로 국어 공부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다음 지문으로 갑시다.

4. 사회 지문 - '실험적 방법'과 '평행추세가정'에 근거한 '이중차분법'

<p>다른 요인은 제</p> <p>'평가'를 위해 집단을 구성하는 방법</p> <p>실험적 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목적</p> <p>1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아닐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 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예외가 실험적 방법</p> <p>2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p>	<p>사건의 효과 '평가'</p> <p>'평가'의 방법</p> <p>시행집단/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 - 평가의 방법</p> <p>실험적 방법 - 표본의 임의 배정 확률적으로 이상적.</p> <p>예외가 존재 예외가 뭘까?</p>
---	--	---

정책 논의를 위해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주로 쓰였던 것이 [실험적 방법] 다만, 예외가 있다고 했으니 앞으로 그 '예외'에 대해서 얘기할 확률이 높음. (참고로 뒤에 나오는 [이중차분법]이 바로 도입부에 나온 '예외')



<p>2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빼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 상대는 필요X. 이차피 '변화' 중요. (정적변할 때 전후 안 같아도 됨. 히)</p>	<p>이중차분법 - Δ 변화</p> <p>이중차분법의 전제</p> <p>평균적으로 같다 = '실험적 방법'</p>
---	---

역시나 1문단의 예외가 나왔죠. 바로 [이중차분법]. 그 전제는 '평행추세가정' 어차피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니 Δ변화를 사용해도 될 것이다.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사회지문에서는 정책의 실제 사례가 나온다.

그러므로 실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됐고/ 이 지문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정책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 찾는 것이 [사회 지문]임을 잊지 말고 독해하자.

사례.

③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⑥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⑦ 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역시나 실제 사례

△ 변화가 나옴.

이중차분법?
평행추세가정이 맞는지 확인하자.

'변화'가 달라...

비교집단 = 시행집단 of Before
↳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
시기 이전이면 동시성 X.

④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①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②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행추세가정과 달리 변화가 다르므로 이중차분법의 타당성이 없어진 상황을 얘기함.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실험적 방법)을 그렇다고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변화 발생의 동시성을 확보하려고 해야 이중차분법의 타당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음.

배고이나.

⑤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③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해결책들이 나옴.

S₁ 여러 비교집단
S₂ 여러 특성에서 유사
평행추세가정의 신뢰도 = 이중차분법 신뢰도

정리해봅시다. 역시나 간단히요.

정리-

‘실험적 방법’은 집단구성이 원래 사건의 평가에 이상적. But, 예외 존재함.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나 변화 발생의 동시성을 고려하여 집단구성.

↓
[평행추세 가정 충족]

↓
[이중차분법 실시]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 ②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 ③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 ④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 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실험적 방법이 아니라
이중차분법이 Δ변화

애초에 이 지문이 [실험적 방법과
이중차분법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 차이를 몰랐으면 지문 독해
완전 실패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UR dokzon in Orbi

15.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일자리 급격히 줄어서 고용효과 ↓. ~ 변화가 달라짐

㉠: 평행추세가정이 성립 X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보다 (A ↓) 것이다. 그러므로 ㉠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 것이다.

왜냐하면 변화가 달라져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서..!

평행추세가정에 대한 이해를
물어본 문제

잘 푸셨으리라 믿어요.

- | | A | B |
|---|------|----|
| ① | 클 | 클 |
| ② | 클 | 작을 |
| ③ | 같을 | 클 |
| ④ | 작을 ○ | 클 |
| ⑤ | 작을 ○ | 작을 |

마지막 문제 봅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P주 저임금 변화 > P주 고임금 변화 = Q주 저임금 변화 (표안보!!)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정책으로 인해 P주 저임금 식당은 변화가 존재.

그러나 정책을 시행 안 한 Q주와 시행을 했어도 대상이 아닌 P주의 고임금 식당은 변화 X

∴ 변화가 달라_평행추세가정 성립 X

역시나 정책을 시행한 변화와 안 한 변화가 다르다는 게 표에서도 보임.

- 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 ②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③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 ④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X 변화의 동시성 > 표의 통계적 유사성
- ⑤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실험적 방법(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도 변화의 동시성을 충족하는 게 평행추세가정 성립 X의 근본적 해결책인 것을 물어본 문제.

이렇게 보면 세 지문 중에서 오히려 가장 간단했던 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 지문은 '정책(혹은 특정 이론)'의 실효성이나 원리를 따지는 경우가 많으니 그 점 유의해 독해하는 습관을 길러봅시다.

제재에 상관없이 도입부는 중요하고요.

여기선 실험적 방법과 이중차분법의 대립을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이었겠네요.

독서 지문 총평

사설틱했다는 수험생들의 의견도 있으나, 지문 자체는 항상 일관된 논리적인 지문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문제가 주제만 알면 풀리게 간단하긴 했으나,

주제로 답을 찾지 않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생경했을 수 있었던 선지들이었다.

출제 기조와 상관없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지문은 논리적이란 것이므로,

평가원 지문이 사실과 다르게 얼마나 깔끔하게 논리적인지 느끼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UR dokzon in Orbi